

한 골 더 넣으면 새역사...55년만의 우승 '히어로'



손흥민



이정협

역대 한국 아시안컵 통산 골 100호-1

손흥민·이정협 2골씩 팀 내 최다

31일 오후 6시 결승전 상대는 '호주'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의 역대 통산 100호 골을 채우고 한국을 55년

만에 대회 정상에 올려놓을 영광의 영광은 누가 될까.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치러진 이라크와의 2015 호주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전반 20분 이정협(상주), 후반 5분 김영권(광주지우 헝다)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27년 만에 대회 결승에 오른 한국은 호주-아랍에미리트의 4강 승자와 31일 우승을 놓고 다툰다. 한국은 1956년, 1960년 이후 처음이자 통산 세 번째로 정상에 도전한다.

한국의 우승 여부 말고도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 결승전 첫 점점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다. 한국은 모두 13차례 아시안컵에 나왔다.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모두 61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국이 역대 아시안컵에서 쌓은 골은 99골이다. 이제 한 골만 더 채우면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한다. 결승에서 연장까지 0-0으로 비기고서 승부차기를 벌이지 않는 한 결승전에서 100번째 골의 주인공이 나온다.

결승전 첫 점점의 주인공은 한국의 우승 주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선수에게는 그 아달로 영광의 기록이 될 터다. 유력한 후보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정협이다. 손

흥민과 이정협은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2골씩 넣어 태극전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몸살 때문에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 결장한 손흥민은 컨디션 난조를 이겨내고 22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 연장전에서 홀로 2골을 책임지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 경기로 A매치 10경기 연속 골 침묵을 깬 터라 그가 보여줄 상승세에 더욱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이정협은 이번 대회 전후로 가장 위상이 바뀐 태극전사 가운데 한 명이다. 슈틸리케 감독의 눈에 들어 아시안컵 대표팀에 들었을 때만 해도 '깜짝 발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17일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A매치 첫 풀타임 출장하고 전반 32분 결승골까지 터트리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후 8강 우즈베키스탄전, 4강 이라크전에 연달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더니 이라크전 선제골로 자신의 기량에 붙는 의심스러운 시선을 잠재웠다.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이들은 결승전에도 그대로 선발로 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100호 골의 주인공이 되고 내친김에 몰아치기까지 한다면 대회 득점왕까지 노려볼 수도 있다. 현재 득점 부문 1위는 4골을 터뜨린 알리 마쿠트(아랍에미리트)와 합자 알다르두르(요르단)이다. 그러나 알다르두르가 뛰는 요르단은 이미 대회에서 짐을 싣었다. 손흥민과 이정협이 넘어야 할 산은 사실상 마쿠트나 팀 케어일(3골·호주) 뿐이다.

/연합뉴스

“한국, 무실점 5연승 원동력은 수비”

아시안컵조직위, 준결승 경기 찬사...“공격력은 숙제”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2015 호주 아시안컵 조직위원회의 공식 논평이 나왔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과 이라크의 준결승전 경기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27일 이같이 해설했다.

스포츠 통계업체 OPTA는 조직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을 “결점이 없는 한국이 결승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정용(불턴), 구자철(마인츠) 등 두 명의 핵심요원을 부상으로 잃었으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고 총평했다. OPTA는 한국 승리의 동력은 5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의 강력한 수비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5경기에서 유효슈팅 14개를 허용해 경기평균 2.8개를 기록, 일본(4경기 6개·경기평균 1.5개)에 이어 이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상대가 골문에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전체 전열의 수비 조직력이 돋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OPTA는 한국이 이라크와의 준결승에서 공격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OPTA는 “수준이 높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결승전을 앞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우려를 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전체 11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무려 10차례가 페널티지역 밖에서 기록됐다. 왼쪽 풀백 김진수(호펜하임)의 긴 프리킥을 스트라이커 이정협(상주 상무)이 헤딩한 게 유일한 페널티지역 내 슈팅이다. 그 슈팅은 골이 됐다.

이라크는 전체 11차례 슈팅 가운데 7개를 페널티지역 안에서 때려 한국의 공격과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최복음

박종우

이영승

전남의 아들·딸, 아시아 볼링 제패

광양시청 최복음·박종우·곡성출신 이영승 5개 합작...한국, 4회 연속 종합우승

전남의 아들·딸들이 시원시원한 '금빛 스트라이크'를 날리며 아시아를 제패했다.

광양시청의 최복음(28)·박종우(25), 곡성 출신의 이영승(여·19·한국체대)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국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에서 획득한 금메달 6개 가운데 5개를 수확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한국 볼링은 아시아선수권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볼링 대표팀은 지난 16~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2·3·5인조

와 개인종합, 여자 5인조·개인종합에서 우승해 금메달 6개를 쓸어들었다.

한국은 또 은메달 4개와 동메달 5개를 추가, 일본(금 2·은 2)과 싱가포르(금 2, 은 1)를 크게 앞지르고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국은 2008년 열린 제20회 대회부터 4회 연속 이 대회 종합우승을 지켜 아시아 볼링 최강국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 출신 태극전사들의 독무대였다.

박종우는 2·3·5인조와 개인종합에서 우승, 4관왕을 차지했다. 최복음은 2·5인조에서 정상에 올랐고, 마스터즈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종우·최복음은 2인조와 5인조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합작했다.

특히, 이들은 2인조에서 6게임 합계 2834점을 때내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곡성 출신 '여자 대표팀 막내' 이영승은 여자 5인조에 출격, 싱가포르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영승은 2인조에서 은메달, 3인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